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7호 【루게 제22999호】주제 99 (2010)년 2월 16일 (화요일)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설명절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설명절에 즈음하여 은하수관현악단의 설명절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경축음악회를 보게 된 끝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똑똑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전체 관람자들은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고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군대와 인민간의 한결같은 향모의 정을 담아 가장 뜨거운 설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설명절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리영호동지를 비롯한 군대와 무력기관들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김영일동지, 김양건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동지가 음악회를 함께 보았다.

은하수관현악단의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 설화와 음악 《송년의 밤이여》, 혼성합창 《축배를 들자》, 여성6중창과 합창 《정일봉의 봄맞이》, 남성독창과 합창 《백두산은 혁명의 고향》, 혼성2중창과 합창 《새날의 청춘》, 혼성합창 《바다여 너를 반긴다》, 여성6중창 《양산도》,

녀성독창 《꽃노래》, 《아름다운 고향》, 《밭갈이노래》, 색스폰6중주 《김치까두기노래》, 첼로독주와 방창 《조국이 찾는 모습》, 녀성독창과 합창 《나래치라 선군조선 천리마여》, 혼성4중창과 합창 《공격전이다》, 관현악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 설화와 음악 《돌과하라 최철단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강성대국이 보인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올렸다.

혁명적기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지어 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 강성대국의 평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려온 자랑찬 승리의 로정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울헤에 다시한번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룡성변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관람자들은 승리의 합성인양 장중

하게 울려 퍼지는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들으면서 류레없는 초강도강행군으로 변이 난 2009년에 강성대국 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을 안아오신 어버이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으며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함으로써 당장건 65돐을 맞는 울헤를 빛나게 장식할 충성의 결의를 다짐하였다.

풍만한 정서와 혁명적열정이 넘쳐흐르는 음악회는 설화와 합창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로 끝났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위용떨칠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역센 기상이 도도히 굽어치는 전진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극장이 떠나갈듯 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는 볼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이 시대정신이 내려지고 민족적향취가 풍기는 사상에술성이 완벽한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를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공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승리의 크나큰 감격을 안고 새해전투에 돌입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초부터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전선에서 다시금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2010년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승리의 한해로 장식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사설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인민의 리상이 꽃피는 미래에로 신심드높이 나아가자

우리 조국은 날에 날마다 위대한 변영의 시대를 상징하는 대사변들을 아로새기며 강성대국의 평마루에 더욱 기운차게 비약하고있다.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희망찬 래일에 대한 신심과 탁만이 차넘치고 온 나라에는 전례없는 혁명적열정과 대고조의 기상이 세차게 약동하고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공동사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호를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고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누릴수 없는 가장 값높은 삶을 꽃피워가는 복받은 인민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강성대국승리의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은 대를 이어나갈수 있는 인민의 평등과 모순 크나큰 민족적특전과 영광을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울헤에도 정초부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무한대한 정력을 지니시고 뻗쳐산강강행군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인 총공세를 진두에서 이끌고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헌신지도강행군은 천만군민의 애국충정을 활화산처럼 폭발시키고 온 나라에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이 휘몰아치게 하는 원동력으로,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위대한 미래를 앞당겨오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국변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있으며 혁명의 수뇌부뒤리에 일심단결하여 강성대국건설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조국의 룡성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습니다.》

인민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조국과 혁명을 이끄는 령도자에게 달려있다. 인민들에게 있어서 운명을 보살피고 이끌어주며 모든 리상과 행복을 꽃피워주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것보다 더 큰

행운은 없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활동력사는 이민주권을 좌우명으로 삼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인민적령도자의 영광스러운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어 조선을 누리에 떨치실 맹세를 안으시고 혁명령도의 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실험을 바쳐오시였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전폭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의 행복은 한쌍의 투쟁목표이고 혁명령도의 원칙이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은 더없는 기쁨이고 보람이다.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은 우리 당을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끄는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이 땅위에 인민적정의 대화원을 펼쳐신 령도의 자욱마다에도 어리여있고 인민의 이름과 더불어 빛나는 로동당시대의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도 되돌아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령도의 전기간 구상하고 결심하신 일은 그 어느것이나 다 인민을 위한것이었고 그것은 그대로 실현이었고 빛나는 현실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고난과 시련이 겹쌓일수록 더욱더 강렬해지는 위대한 어버이사랑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앞에 최악의 역경이 닥쳐왔던 준엄한 시기에 선군의 길을 선택하신것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총공세로 위용떨치고 이 땅우에는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희망찬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와 같이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시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며 인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조국과 혁명을 이끌어오신 인민적령도자, 위대한 정치가는 령도가 일찌기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력사야말로 《인민》이라는 두글자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인민의 어버이의 성스러운 력사이며 인민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내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의 불멸의 력사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의 기치밑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신것은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최대의 업적으로 된다. 사회주의는 인민의 리상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꽃피날수 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대대 위주선 세상에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찌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영원한 인민의 삶의 터전으로, 행복의 요람으로 빛내시기를 위해 모든 정력을 다 바쳐오셨다. 사회주의는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이라는 투철한 혁명적립장, 사회주의를 끝까지 옹호고수하여야 인민들에게 참다운 행복과 찬란한 미래를 안겨줄수 있다는 숭고한 책임감, 이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령도에 일관된 근본정신이었다. 천만시련이 앞을 가로막고 그 어떤 바람이 분다고 해도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빛내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와 같은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을 집대성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도 어리여있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나날에도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과 국가의 사회주의적시책을 변함없이 실시되도록 하신 감동깊은 사실에도 비겨있다.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를 절경히 고수하시고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이끄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느 인민도 누릴수 없는 사회주의복을 누려가고있다. 인민이 모든것을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 위대한 령도자를 어버이로 모시고 전체 인민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일심단결의 나라,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희망찬 래일로 비약해나가는 전도양양한 사회가 바로 인민들의 세기적대업이 실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우리 인민은 우리는 행복이 커가고

앞길에 보다 밝은 미래가 펼쳐질수록 류레없는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영원히 찬란복을 누려갈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다져놓으신것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승망을 실현한 거대한 민족사적공적으로 된다.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위력한 나라에서 살려는것은 인민들의 리상이며 념원이다. 무적의 총대우에 인민의 행복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과 령도에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다져놓으신것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승망을 실현한 거대한 민족사적공적으로 된다.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위력한 나라에서 살려는것은 인민들의 리상이며 념원이다. 무적의 총대우에 인민의 행복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과 령도에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다져놓으신것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승망을 실현한 거대한 민족사적공적으로 된다.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위력한 나라에서 살려는것은 인민들의 리상이며 념원이다. 무적의 총대우에 인민의 행복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과 령도에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다져놓으신것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승망을 실현한 거대한 민족사적공적으로 된다.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위력한 나라에서 살려는것은 인민들의 리상이며 념원이다. 무적의 총대우에 인민의 행복이 있다.

앞길에 보다 밝은 미래가 펼쳐질수록 류레없는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영원히 찬란복을 누려갈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빛나는 선진지명으로 조국과 인민의 무궁한 번영과 행복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것은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업적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땅우에 우리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대세를 원대한 포부를 지니시고 일찌기부터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조국과 민족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며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내미시는 비범한 령도이며 후손대대의 번영을 위한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밀고나가는 위대한 선군적령도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나라의 정치사상적, 군사경제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우리 조국을 사상과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전면시킴은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한 근본담보를 마련한 불멸의 업적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오늘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상을 들끓게하는 최후의 변들이 일어났고 모든 전선에서 놀라운 승리와 기적이 이룩되고있는것은 그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준엄한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위하여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의 장성이었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껴보고있다. 대대산과 오성산, 351고지를 비롯한 최전연초소들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대중이 주체혁명의 강력한 주력군,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위용떨치고 우리 조국은 전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된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게 되었다.

올해 정초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이 울린 멸적의 포성은 무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선군정적승리의 포성이다. 지난해 총대가 약해 양국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던 우리 조국이 오늘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덤벼들수 없는 강력한 정적억제력을 가진 준엄한 군사강국으로 위용

앞길에 보다 밝은 미래가 펼쳐질수록 류레없는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영원히 찬란복을 누려갈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빛나는 선진지명으로 조국과 인민의 무궁한 번영과 행복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것은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업적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땅우에 우리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대세를 원대한 포부를 지니시고 일찌기부터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조국과 민족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며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내미시는 비범한 령도이며 후손대대의 번영을 위한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밀고나가는 위대한 선군적령도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나라의 정치사상적, 군사경제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우리 조국을 사상과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전면시킴은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한 근본담보를 마련한 불멸의 업적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오늘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상을 들끓게하는 최후의 변들이 일어났고 모든 전선에서 놀라운 승리와 기적이 이룩되고있는것은 그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준엄한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위하여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의 장성이었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껴보고있다. 대대산과 오성산, 351고지를 비롯한 최전연초소들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대중이 주체혁명의 강력한 주력군,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위용떨치고 우리 조국은 전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된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게 되었다.

올해 정초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이 울린 멸적의 포성은 무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선군정적승리의 포성이다. 지난해 총대가 약해 양국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던 우리 조국이 오늘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덤벼들수 없는 강력한 정적억제력을 가진 준엄한 군사강국으로 위용



전 만 군 민 의 마 음 끝 없 이 달 려 가 는 백 두 산 밀 영 고 향 집

본 사 기 자 리 원 국 적 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각 하

존경하는 위원장각하

나는 당신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당신께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2000년 2월 9일 체결된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기초하고있는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다방면적인 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발전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정과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김정일각하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하며 조선인민에게 평화와 복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데 . 메 드 베 제 브

2010년 2월 16일

모스크바, 크렘틀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2. 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2. 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8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2. 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기업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 기여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기업소의 로동계급과 지원자들이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어렵고 방대한 건설공사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낸데 대하여, 질 좋은 비날론술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간고분투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기업소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 전기, 무연탄을 비롯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대주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할데 대하여, 화학제품의 가지수를 더 늘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중국국제방송과 홍콩《대공보》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파르-파스트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령도자께서 2. 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오랜 시간에 걸쳐 현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기업소에서 여러가지 화학

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비날론과 비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공장을 전망성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체스코주제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코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공동홈페이지《조선-백두산》도 같은 소식을 실었다.

본사기자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2. 16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평양 2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2. 16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4. 25문화회관 대회장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어 이 땅에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현실을 펼쳐 주시고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선군조선의 국력을 만방에 떨쳐주시는

백두의 천출위인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신비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 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백전백승의 기치인 조선로동당이 펼쳐져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도봉과 《경축-2. 16》이라는 글씨가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으며,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 하였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을 경축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에 온 재일본 조선인속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속 하단, 대표단, 방문단들, 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전병호동지, 김영춘

동지, 리용무동지, 오국렬동지, 리영호동지, 김정각동지, 김일철 동지, 최태부동지, 김국태동지, 김중민동지, 김기남동지, 양형섭동 지, 최영립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 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 기관 책임일군들, 영웅들, 점점자들,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나섰으며, 재일본조선인속하단 단장인 리기

석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제 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단장인 최 은복 제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대회가 선연되자 애국가가 주악 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경축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당의 선군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 혁신, 대비약을 이룩함으로써 당창 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정사 에 특기할 위대한 변혁의 해, 인민 의 행복이 활짝 꽃피어나는 변혁의 해로 빛내여갈 참가자들의 혁명적 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 되었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끝났다.

1 면에서 계속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강성대국건설대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의 강행군정신에 의하여 추동되고있다.

일찍부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우리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날이 갈수록 강행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진군을 이끌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던대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기전에는 발전잠을 잘수 없다고 하시며 불철주야의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에 오르는 분이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정신은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으로 내달리는 비약의 정신이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성과와 만족을 모르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돌진해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의한 신념과 의지에서 오늘의 대고조대의 불길의 투사가 지녀야 할 정신력의 최고높이를 보고있다. 위대한 선군명장의 백전백승의 강행군정신을 따라 천만군민이 영웅적결사전으로 질풍같이 내달리기에 온 나라를 격동시키는 대정사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는것이다.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강성대국건설대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에 의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뭉친 힘에는 한계가 없으며 군민의 심장이 발동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신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좌측을 보면 나의 병사들이 있고 우측을 보면 나의 인민들이 있다고 하시며 병사들과 인민들속에서 강성대국건설대진을 승리로 인도하고 계신다.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믿음으로 수놓아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길우에서 우리 일심단결이 천백배로 다져지고 어디서나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고있다.

눈덮인 회천발전소건설장장을 찾오시어 건설자들을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과 장군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건설자들의 고결한 총명의 세계는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나라에서만 펼쳐질수 있는것이다. 그 어떤 힘도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이 뜻을 같이하고 정을 함께 나누는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을 당해낼수 없고 우리의 거대한 대고조진군을 가로막을수 없다.

지금 우리는 날에 날마다 온 나라를 들썩하게 하고 전체 인민을 크나큰 환희와 락관으로 풀어번지게 하는 위대한 사변들이 창조되는 격동의 시대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선군조선의 이 빛나는 전성기를 대고조의 위대한 승리와 성과로 끝없이 빛내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명운을

빛나게 실현하는것은 우리 세대가 후대들과 력사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이요 임무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명도로 선군조선의 위대한 번영기를 창조하시며 우리 조국을 강성대국으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모든 전선에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앞당겨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선군조선의 광명한 앞길을 밝히는 태양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이 세상 끝까지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라야 한다. 장구한 기간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으며 오늘과 같이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시대를 펼쳐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조국과 민족의 만년 제보로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수령결사옹위는 민족번영의 생명선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장군님을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의 권위와 안일을 모든 사업과 생활의 첫자리에 놓고 삶의 순간순간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수놓아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것은 우리의 리상과 행보를 꽃피우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오늘날 위대한 장군님의 참다운 동지, 결렬한 혁명가가 된다는것은 바로 장군님의 대고조사상, 강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간다는것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대고조의 승리로 당과 수령을 옹위하자는 각오를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한목숨바쳐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사상을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장군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라면 전격적으로 달려붙어 최상의 수준에서 해결되는 혁명적기쁨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의 심장은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시간으로 뛴뛰어야 하며 우리의 발걸음은 장군님의 강행군복록으로 이어져야 한다.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통하여 령도자와 군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조국의 일심단결의 기상을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의 대문을

열어놓는 사변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마련해주신 강력한 토대와 잠재력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리상을 실현할수 있다는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어 분발하여야 한다. 누구나 리상과 포부를 높이 세우고 자기 맡은 초소에서 영웅적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를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는 변혁의 해로 되게 하려는 당의 구상을 받들고 인민소비품생산과 먹는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4대선행부문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12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새해 전투의 불길을 지퍼주신데 이어 새해벽두에 회천발전소건설장과 제령광산, 폐성강청년2호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신 숭고한 의도를 깊이 새기고 높은 생산적양상으로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떠밀고나가야 한다. 2. 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가지수를 더 늘이기 위한 투쟁을 파감히 벌려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첨단들과 더불어 사변적의를 가지는 자량한 성과를 이룩한 긍지를 안고 10월의 경축광장에 멋있게 들어서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우리 당의 이민

위원의 사상을 모든 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우리 인민의 행복찬 삶을 위하여 끊임없는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총공세를 영웅적위훈으로 빛내여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모든 당사업을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데 지향시켜야 한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합!》이라는 구호를 틀어쥐고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대로 언제 어디서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실현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조국역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변영의 시대가 찬란히 펼쳐져있다. 철세의 애국자이시며 인민의 위대한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명도밑에 선군조선의 정치군사적, 경제적위력은 날로 강대해지고있으며 인민들의 천만가지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우리 당의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은 끊임없이 비약하며 승리하는 우리 조국의 장엄한 현실속에서 더욱 뚜렷이 파시되고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우리 인민의 세기적리상인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가자.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백두의 천출위인을 모셔 선군조선의 년대기구에 일대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온 겨레가 신심드높이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들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을 뚝뚝 맞아하고있습니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이북방위에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조국통일위업을 끝마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경의와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해방의 새봄이 태동하던 항일의 준엄한 전구에서 시대의 촉박속에 백두광명성으로 찬란히 솟아오르신것은 김일성조선의 무궁한 번영을 기약하는 민족의 대통운이었으며 인류자주위업의 미래를 담보하는 세계사적대사건이었습니다.

력사의 이적이 있어 우리 민족은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복을 누리며 세기와 세기를 이어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치기 자주시대를 힘있게 선도해오셨습니다.

결출한 위인의 품격과 자질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는 어버이주석님의 이념이념의 원대한 구상과념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시니 가장 숭고한 총정의 력사이며 출중한 정치신력과 탁월한 명도로 강성대국건설의 새시대를 펼쳐주시 애국애족의 거목한 년대기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고 독자적인 선군정치를 사주체의기반정치화시킴으로써 확립하시어 우리 민족과 나라가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숙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어버이주석님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나가는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선군혁명위업을 백승의 길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항도적력량을 민족적투쟁과 번영의 만년초석으로 굳건히 다지시어 김일성민족의 력사가 세세년년 무궁토록 흐르게 하시었습니다.

치열한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편편순환한 이북이 당당한 핵보유국이 되어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오고 오늘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며 경제강국의 명마루를 향해 총진격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모셔 펼쳐진 반만년민족사의 특기할 기적입니다.

애국헌신의 빨치산식강군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목한 자욱따라 지난해 민족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를 펼쳐놓은 이북국민은 지금 민중생활향상에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적대고조의 거대한 열풍으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세인을 놀라이 격동시키고있습니다.

조국통일을 민족최대의 파포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주석님께서 제시하신 로선들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하시어 우리 민족이 통일위업수행에서 들고나갈 필승불패의 기치를 안겨주시었으며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하시어 장엄한 《우리 민족끼리》시대를 열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이 땅의 친미보수세력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주동적이며 대범한 조치들을 연속 취하도록 하시어 조국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커다란 심안과 용기를 안겨주시었습니다.

천리신안의 예지와 과격적인 통찰력으로 조국통일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뜨거운 동포애와 넓은 도량으로 겨레를 하나로 안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남녘의 각계 애국민중은 친미파쇼와 동족대결의 환과가 사납게 몰아치는 속에서도 굴함없이 자주통일운동을 힘있게 벌여오셨습니다.

세계정치의 원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강인당대내 배짱과 로숙한 대외활동으로 선군조선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을 비상히 높이고 애국주의의강령을 제정하시어 자주와 독립,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류를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셨습니다.

참으로 비범한 천품과 탁월한 정치경륜을 지니시고 장장 반세기에 걸쳐 민족과 인류의 자주성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겨레가 받아안은 최대의 특전이며 무상의 행운입니다.

백두의 천출위인을 모신 끝없는 민족적공지와 환화에 넘쳐 2월의 명절을 경축하고있는 반제민족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일련단신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자주통일의 한길로 여세를 나아가 같은 결에 동참되어있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조국과 민족의 운명, 통일강성대국의 상정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반제민족대오를 장군님의 사상과 명도로 총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조직사상적전일체로 더욱 단결합이 다져졌습니다.

우리들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들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제정 30돐을 같은 올해 경향각지에서 자주통일운동을 활발히 추진시켜 어버이주석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조국통일명도업적을 빛내이며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전진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적극 투쟁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남북민중의 애국적위대대결 대승의의와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여 반통일세력에 비한 통일애국세력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며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강도높이 벌여 외세가 없는 통일된 민족의 새시대를 하루빨리 앞당겨오겠습니다.

우리들은 각계 민족의 총대합으로 내의반통일세력의 날로 로골화되는 반공화국대결전략과 북진정세동세를 저지과 탄지시켜 파쇼독재체제를 지탱해보려고 단말마적으로 발악하는 극우보수세력을 단호히 정벌함으로써 변혁운동에서 새로운 양상기를 열어나갔습니다.

우리들은 6.15선언시대의 민족정신이며 유일무이한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대세에 역행하는 보수집권당국의 반일정세를 결정적으로 분쇄하여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은 주체혁명위업완성과 통일강성대국건설의 결정적담보이며 전체 남녘민중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열화와 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제99 (2010)년 2월 16일 서 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리는 축하문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조국땅에 《희천속도》로 강성대국에로의 직진주로를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람한 발구름소리가 메아리치고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번혁의 장엄한 화적이 펼쳐지는 벅찬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을 류다른 감격과 더없는 기쁨을 안고 맞아하고있습니다.

경사스러운 2월명절의 이 아침 전체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은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조국해방 6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조국땅에서 아로새겨질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려는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새해벽두부터 후환을 내지 않을 다 맞으시며 력사적인 2010년의 진군길을 쉬임없이 헤쳐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목하신 영상을 끝없는 격정을 안고 우러르고있습니다.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축복과 환희속에 탄생일을 맞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전체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의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2월의 명절을 경축하는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민족대경사의 날이 있어 우리 민족이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복을 누리고있으며 50성상에 걸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선군혁명명도가 있어 주체조선의 약동하는 오늘과 장창한 미래가 있음을 절감하고있습니다.

우리들은 간고한 시련을 헤쳐온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확고부동한 결심을 안으시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진두에 서시어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걷고있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새해 행도자욱을 새기며 새길수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시는 로고에 한없는 정모의 정을 곁들여 더욱 우레안개를 바라하는 마음 더욱 절절해지시기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초부터 발전조건설정과 생산, 공장과 기업소를 끊임없이 현지지도하시면서 지금 전국도처에서는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적적이며 력사적으로 강성대국승리의 축포가 리저로 영광의 시각을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오고다 그집게 말뚝할때 우리들의 심장은 필승의 신념으로 끓어번졌으며 김일성시대 우하는 시대에 대한 확신으로 새창이 고동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은 세계가 선망하는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그 어떤 대적도 범접 못하는 막강한 자위력을 갖춘 군사강국, 세계정판을 둘러싸는 과학기술강국으로 위용발전되고있으며 오늘은 조미대결전의 최후승리와 경제강국의 명마루를 향해 용을 쓰며 줄달음을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지극히 내다보고있습니다.

진정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고봉에 올려세우시고 조국 땅에 인민의 전진기행이 꽃피날 강성민족의 새시대를 안아오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명수로 높이 모신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의 영광과 행복은 이제 새창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혁명위업결성의 첫 자욱을 새기신 그날부터 총련과 제일동포들을 한심술로 포근히 안아 온정깊은 배려를 다 들려주시고 력사의 대 단계를 다 총련이 세계의 외교공운동의 선구자로서의 영예를 떨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습니다.

그토록 간고하디한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총련과 제일동포들을 한심도 잊지 않으시고 하해 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었으며 더없이 귀중한 강령적가르치실

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유신인 총련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세계 제일조선인운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조국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턱을 달 때 총련과 제일조선인운동도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야 한다고 우리들은 조국의 대고조전군대오에 맺어내내주시는 한없이 고귀한 믿음을 안겨주시며 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미래를 위해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총에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총련의 민족교육의 현 실재를 심려하시며 올해를 《민족교육을 강화하는 해》로 정해주시었음뿐 아니라 리정에 니시도교 조선제2초급학교 교장을 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시어 총련의 새 전성기를 개척해나가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신심과 활력을 부여해주셨으니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은 주시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안겨주시는 우리모두의 자애깊은 어버이이시며 은혜로운 스승이십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총련결성 55돐과 총련 제22차 전체대회를 맞이하는 올해를 새 세계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개척하기 위한 전진적대회를 든든히 구축하는 결정적전환의 해로, 민족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애국애족운동을 기일출 강화발전시키는 도약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총련인민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 사상과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선군시대의 참된 일꾼들로 든든히 준비시키고 동포들에게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길에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신념을 안겨줌으로써 조직애로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지부와 분회, 단체 기층조직을 강화하여 단합되고 약동하며 매력을 지니는 기적으로 더 잘 꾸려오도록 총련의 주체적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갔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대로 《민족교육을 강화하는 해》인 올해에 날마다 새 기적을 창조하는 조국인민들의 총공세에 보조를 맞추어 리정에영웅을 따라배우려는 운동을 전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결사의 각으로 민족교육을 고수발전시키는 사업을 줄기차게 벌여나갔습니다.

우리들은 《동로포찾기운동》과 민족문화활동,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주주의옹호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새 세대와 상공인을 비롯한 각계층 동포들을 우리의 민족권에 망라시켜 총련의 균중지반을 공고화해나가는 데 기여하여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조국의 최전방전선 건설자료를 지원하며 인민생활향상과 나라의 과학기술, 농업발전에 특색있게 이바지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조국의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 거족적투쟁에 적극 한사하며 대외 활동을 전진적으로 벌여 일본당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배격하고 조일 두 나라 인민의 우호친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나갔습니다.

조국력사 역에서 2월의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제일동포들이 사수되는 그리움을 안고 간절히 바라보고있는것은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의 다함없는 축복의 한마음을 담아 21세기 인류의 태양이시며 제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제99 (2010)년 2월 16일 일본 도쿄

2.16 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 초대공연 진행

2.16 경축 재일조선인 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장군님 가까이 우리 삼니다》가 15일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인민력률부 장 김명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수송, 박명신 내각부총리들, 성, 중앙기관 일꾼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에 초대되었다.



사회주의조국에 제류하고있는 리기적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예술단,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동포예술인들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려는 일념을 안고 특색있게 준비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내성독창 《아비지 사랑》을 비롯한 여러 종목에서 출연자들은 겨레의 운명이시고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장군님을 더 잘 모시려는 굳은 의지를 높이 구가하였다.

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조국인민들과 발걸음을 같이해나갈 제일동포들의 신념을 반영한 남성독창 《매일을 믿으라》, 장성남독주 《통일의 열풍》, 성성3중창 《강성부흥아리랑》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내성3중창 《하면 됩시다》와 독주 《쌍부제춤》, 내성독창 《모란봉》 등의 종목들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애국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려는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의 확고한 결심을 잘 보여주었다.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객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 공연은 혼성중창 《2012년을 향하여》로 막을 내렸다.

제19차 《백두산상》 국제회거축전 개막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제19차 《백두산상》 국제회거축전이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개막식이 15일 빙상관에서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우라》, 《내 나라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로 더욱 빛내어나가자!》라는 글발이 드려온 대형기자들이 개막식장에 도착하였다.

또한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형상한 그림판과 《자주》, 《평화》, 《전선》, 《제19차 《백두산상》 국제회거축전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는 글발들이 나붙어있었다.

개막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박범기, 박수길 내각부총리들,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판계부문 일꾼들, 시내 체육인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최은복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축전위원회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축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회거축전 개막식에서 우수성과를 거둔 우리 나라와 여러 나라 회거선수들을 세련되게 재치있는 기교와 제인 안삼들로 독특한 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하여 관람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개막식에서는 우리 나라 회거선수들의 집체출연이 있었다.

《축원의 꽃보라》의 노래선율에 맞추어 출연자들은 주체혁명위업과 인민주주의의 승리적전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어 만민의 끝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있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최대의 영광과 축원의 인사를 담아 아름답고 재치있는 물동들을 보여주었다.

선군조선의 위력으로 다시한번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결같은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돌파하라 최첨단을》, 《더 높이 더 빨리》, 《전선에서 만나자》 등의 종목들도 은반우에 펼쳐졌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모범출연이 있었다.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우리 나라와 여러 나라 회거선수들은 세련되게 재치있는 기교와 제인 안삼들로 독특한 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하여 관람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2.16 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에 즈음하여 2.16 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가 각 도, 시, 군에서 진행되었다.

보고대회 및 보고회들에는 지방당, 정전기관, 사회단체 일꾼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해당 단위 책임일꾼들이 경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탄생은 주체혁명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주는 민족의 대통운이었으며 인류자주위업의 밝은 전도를 기약해준 세계사적사건이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위업을 진두지휘하시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위력을 온 세상에 떨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신 사상과 신념의 강군, 무적필승의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때에 대한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천리마 대고조의 전풍을 계승하여 사회주의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도록 하시어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가 펼쳐지게 하시었다.

보고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시어 이 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격동적인 시대를 펼쳐주시었으며 민족민중의 번영과 인류의 평화를 앞당겨나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정신을 주체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올해공동사업과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

데 대하여 말하였다.

당의 경공업혁명방침과 농업혁명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집단들과의 열풍을 일으키는것과 동시에 경제조직사업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오도록 인민생활향상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온 사회에 온산조식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고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을뿐 아니라 배후 인민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민간무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온 나라를 금성철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대고조전투쟁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승리의 만세소리가 커져 오를 그날을 앞당기며 김정일조선의 무궁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에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16 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에 즈음하여 2.16 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가 각 도, 시, 군에서 진행되었다.

보고대회 및 보고회들에는 지방당, 정전기관, 사회단체 일꾼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해당 단위 책임일꾼들이 경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탄생은 주체혁명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주는 민족의 대통운이었으며 인류자주위업의 밝은 전도를 기약해준 세계사적사건이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위업을 진두지휘하시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위력을 온 세상에 떨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

그들은 비범한 자질과 풍모, 특출한 정치신력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혁명의 한길로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현 시대의 가장 절출한 정치지도자,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신 사상과 신념의 강군, 무적필승의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때에 대한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천리마 대고조의 전풍을 계승하여 사회주의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도록 하시어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가 펼쳐지게 하시었다.

보고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시어 이 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격동적인 시대를 펼쳐주시었으며 민족민중의 번영과 인류의 평화를 앞당겨나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정신을 주체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올해공동사업과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

데 대하여 말하였다.

당의 경공업혁명방침과 농업혁명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집단들과의 열풍을 일으키는것과 동시에 경제조직사업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오도록 인민생활향상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온 사회에 온산조식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고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을뿐 아니라 배후 인민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민간무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온 나라를 금성철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대고조전투쟁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승리의 만세소리가 커져 오를 그날을 앞당기며 김정일조선의 무궁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에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 란 대 통 령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를 접견

마호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이 10일 서세령 이란주재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를 접견하였다.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호무드

이 란 대 통 령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

이 란 대 통 령

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건강하십시오 고귀한 사업에서 계속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자신의 인사를 21개 전하어드린것을 대사에게 부락하였다.

그는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 란 대 통 령

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건강하십시오 고귀한 사업에서 계속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자신의 인사를 21개 전하어드린것을 대사에게 부락하였다.

그는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